

최근 멕시코의 최혜국대우 관세 인상 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김성환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부연구위원 (sdavidkim@kiep.go.kr, Tel: 044-414-1123)

손은아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연구원 (euna@kiep.go.kr, Tel: 044-414-1323)

차 례

1. 멕시코 관세 인상의 배경
 2. 멕시코 관세 인상 조치의 후생에 대한 영향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부록 1. 중국의 우회수출 및 멕시코 내 영향력 강화
2. 모형 및 데이터

주요 내용

- ▶ 2026년 1월 1일 발효된 멕시코 관세 인상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도 FTA 비체결국이기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 자동차, 철강, 가전, 섬유, 신발, 화학제품 등 총 1,463개 품목에 최대 50%의 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
 - 멕시코의 최근 관세 인상은 미국의 중국발 우회수출을 견제하는 기조와 발맞추어 중국을 표적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과 중국 모두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최혜국대우 관세 인상 적용 대상임.
- ▶ 멕시코의 관세 인상은 중국의 교역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한국 역시 다양한 산업에서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한국의 대멕시코/대세계 무역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GDP 대비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 않기에 향후 대멕시코 통상 전략에 주의를 요함.
 - 한국의 산업 중 교역조건이 크게 감소하는 산업은 컴퓨터, 자동차, 광업·채석, 기타 기계, 화학, 가구, 기초금속, 전자·전기장비, 석유정제품 등이며, 중국의 산업 중 교역조건이 크게 감소하는 산업은 컴퓨터, 기타 기계, 가구, 면직물, 전자·전기장비 등임.
 - IMMEX, PROSEC과 같은 저관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멕시코 관세 인상은 한국의 교역조건과 중국의 교역조건을 각각 0.0259%, 0.0074% 감소시키며, PROSEC의 저관세 혜택을 모두 받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 각각 0.0123%, 0.0039% 감소
 - 한국의 대세계 무역의존도가 높아 생기는 간접효과도 존재하며 다른 산업으로 충격이 전파되는 양상을 보임.
- ▶ 멕시코 관세 인상은 중국의 수출량을 장기적으로 약 0.35%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과정에서 멕시코 후생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양날의 검이며, 향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시 한국정부는 한-멕시코 FTA를 통해 한국이 중국을 대체함으로써 멕시코의 후생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멕시코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이번 멕시코의 관세 인상은 미국의 압박을 의식한 조치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을 견제하는 것이 의도
 - 중국의 수출 감소는 주로 제지와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하며 면직물은 타 국가로의 수출로 대부분 대체
 - 멕시코의 후생 감소는 관세 인상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훼손시키며 발생하며 중간재 조립 허브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데에서 기인
 - 결과적으로 한국의 피해가 작지 않기에 관세 인상의 예외조항을 한국에 유리하게 설정하거나 더 나아가 FTA를 체결하는 방향의 전략적 고민 필요

1. 멕시코 관세 인상의 배경

■ 2026년 1월 1일 발효된 멕시코 관세 인상은 광범위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적 대외전략을 고려했을 때 관세 인상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시의성과 중요성이 모두 높음.

-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액은 약 216억 달러로 한국 GDP의 약 1.26%이지만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 멕시코가 중간재 조립 허브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 글로벌 가치사슬 내 자리매김이 한국의 전략적 관심이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여파에 대한 연구가 필요¹⁾
- 본고는 멕시코의 무·저관세 혜택 고려 시 최근 멕시코 관세 인상의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고 장기적인 주요국의 후생 변화와 산업별 영향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한국 기업 및 정부에 시사점 전달
- 주요국 중 한국, 중국의 후생 변화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산업별 교역조건(terms of trade) 및 교역량(volume of trade) 증감을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련 경제적 함의 제공
 - 본고가 활용하는 모형 내에서 교역조건은 후생 변화 중 중간재 가격의 변화에 의한 부분이며 직관적으로 중간재 수출입에 있어 국가경쟁력으로 이해 가능
 - 교역량은 후생 변화 중 중간재 수출입량의 변화에 의한 부분으로 관세수입으로 인한 국내 후생 변화를 포함함.
-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크고 데이터 접근성이 좋은 30개국의 ISIC Rev. 4 기준 19개의 교역재 산업과 21개의 비교역재 산업을 구축하여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모형의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²⁾
 - PROSEC의 경우 적용대상이 품목별로 지정되어 있기에 해당 프로그램의 관세혜택을 최대한으로 받는다는 가정하에 분석 진행

■ 멕시코 정부는 2025년 9월 FTA 비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입품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동차, 철강, 가전, 섬유, 신발, 화학제품 등 1,463개 전략 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관세(Most-Favoured-Nation Tariff)를 최대 50% 수준까지 인상했으며, 이는 광범위하고 파격적인 인상안
- 멕시코 경제부는 해당 관세 부과 조치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플랜 멕시코(Plan Mexico) 정책에 명시된 1) 전략 산업 보호, 2) 아시아산 수입품의 국산 대체, 3) 국내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³⁾

■ 멕시코의 관세 인상 조치는 중국의 우회수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한국도 멕시코 FTA 비체결국 중 하나인 만큼 실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수 있음에도 관련 후속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

1) UN COMTRADE와 OECD 자료를 활용해 저자 계산.

2)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2] 참고.

3) 멕시코정부(2025. 12. 15.), "Gobierno de México: Paquete Arancelario protegerá 350 mil empleos de 17 industrias estratégicas del país," <https://www.gob.mx/presidencia/prensa/gobierno-de-mexico-paquete-arancelario-protgera-350-mil-empleos-de-17-industrias-estrategicas-del-pais>.

- 멕시코에서 2025년 9월 9일 발표한 당초안보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 인상 대상 품목 축소 및 관세율 하향 조정, 철강 슬라브 관세 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 조정 등 한국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⁴⁾
 - IMMEX, PROSEC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부담하는 관세율은 더 낮을 가능성 존재
- 1월 1일 이후 충분한 무역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실증적인 결과물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세정책의 경제적 함의 파악과 모형을 통한 영향 예측 가능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포함한 통상 정책을 통해 멕시코에 대한 정책적 압력을 확대하며 중국 우회수출에 대응해 왔으며, 이에 멕시코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수입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음.⁵⁾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멕시코가 중국의 수출 허브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멕시코의 경우 일부 사례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⁶⁾
- 멕시코 정부는 중국 등 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일부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철강, 자동차, 섬유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입 규제 조치를 확대함.⁷⁾
 - 2024년 4월 멕시코 정부는 FTA 비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024년 7월부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북미 지역에서 제련 및 주조된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 면제를 적용
 - 2024년 10월부터 멕시코 정부는 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종료
 - 2024년 12월 멕시코 정부는 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저가 제품 유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 해당 조치는 공식적으로는 FTA 비체결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국산 제품 유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됨.⁸⁾

■ IMMEX, PROSEC과 같이 무·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멕시코의 최근 관세 인상과의 역학관계는 아직 불분명

- IMMEX는 해외수출용 수입 원자재·설비에 대해 관세 납부 임시유예 및 (재)수출 시 관세를 면제하는 멕시코 정책
 - 2024년 12월 19일 발표한 IMMEX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IMMEX 부록 I)은 의류 및 기타 섬유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액의 약 0.1%만 차지하는 데에 비해 중국의 대멕시코 수출액에서는 약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보다 IMMEX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여지가 있음.⁹⁾

4) 산업부 보도자료,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335/view>.

5) Bloomberg(2025. 8. 28.), "Mexico to Raise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After US Push,"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8-27/mexico-plans-to-raise-tariffs-on-chinese-goods-in-2026-budget-proposal>.

6) Reuters(2025. 12. 5.), "Canada and Mexico should not be export hubs for China, says USTR,"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canada-mexico-should-not-be-export-hubs-china-says-ustr-2025-12-04/>.

7) 홍성우 외(2025), 「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한 멕시코의 최근 조치와 함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8) 중국의 우회수출 및 멕시코 내 영향력 강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고.

9) 멕시코 정부의 IMMEX 개정안, https://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745788&fecha=19/12/2024#gsc.tab=0.

- PROSEC은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약 24개 분야의 수입 기계, 장비, 부품·소재에 대해 10% 이내의 종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그 실무적인 적용 범위와 정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¹⁰⁾
 -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액 중 최대 27.2%까지 PROSEC의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¹¹⁾

2. 멕시코 관세 인상 조치의 후생에 대한 영향

■ 멕시코 내 관세혜택의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했으며, 하나는 최근 멕시코 관세 인상의 영향을 온전히 기업들이 감당하는 시나리오고, 다른 하나는 멕시코 관세 인상의 영향을 PROSEC을 최대한 활용해 방어하는 시나리오

- 경제모형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양극단의 시나리오로, 두 시나리오가 정량적인 차이는 있으나 정성적인 차이는 없음.
- 대멕시코 수출 시 멕시코의 관세혜택은 PROSEC만을 고려했음.
 - PROSEC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기계, 화학,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중간재 및 부품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해당 품목에 대해 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대체하는 낮은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 특히 동일 HS 코드 내에서도 적용 산업 및 세부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실제 관세혜택의 적용 범위는 산업별 프로그램 적용 여부 및 품목별 세부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¹²⁾
 - IMMEX의 적용은 품목별 제약이 거의 없는 반면 기업 유형에 따른 제약만 있기에 기업 단위(firm-level) 데이터 없이 적용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기술적인 이유로 해당 모형에서는 구현하지 않음.
- 2023년도 무역 및 관세 데이터, 2022년 투입산출량/부가가치/총생산 데이터를 사용했음.¹³⁾
- 총 30개국 중 멕시코 FTA 비체결국으로서 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는 다음과 같음: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 최종적으로 ISIC Rev. 4 분류로 모든 데이터를 통일했으며, 교역재 산업과 비교역재 산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¹⁴⁾
 - 교역재 산업(tradable sectors): 농림수산, 광업·채석, 식·음료, 면직물, 목재, 제지, 석유정제품, 화학, 의약,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기초금속, 금속가공, 컴퓨터, 전자·전기장비, 기타 기계, 자동차, 운송, 가구
 - 비교역재 산업(non-tradable sectors):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업,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창고·운송지원, 우편·택배, 숙박·음식·주점, 출판·방송, 통신, 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 보험·금융, 부동산, 연구, 행정, 공공행정·국방, 교육, 보건, 예술, 기타 개인 서비스

10) PROSEC은 공정 과정에 사용되는 약 24개 부분의 수입 장비 및 부품에 종가세 10% 이하의 저관세를 부과하는 프로그램.

11) 해당 수치는 최신 PROSEC과 UN COMTRADE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 계산. 다만, PROSEC은 HS 8단위에서도 세부적인 예외조항이 많고 같은 HS 품목 내에서도 세부 품목마다 적용 관세율이 매우 이질적임. 관세혜택 최대치를 산출하기 위해 세부 품목의 적용 관세율을 최소치로 설정함.

12) 멕시코정부, Decreto por el que se establecen diversos Programas de Promoción Sectorial.

13) [부록 2] 참고.

14) Caliendo and Parro(2015) 분류를 최신화한 산업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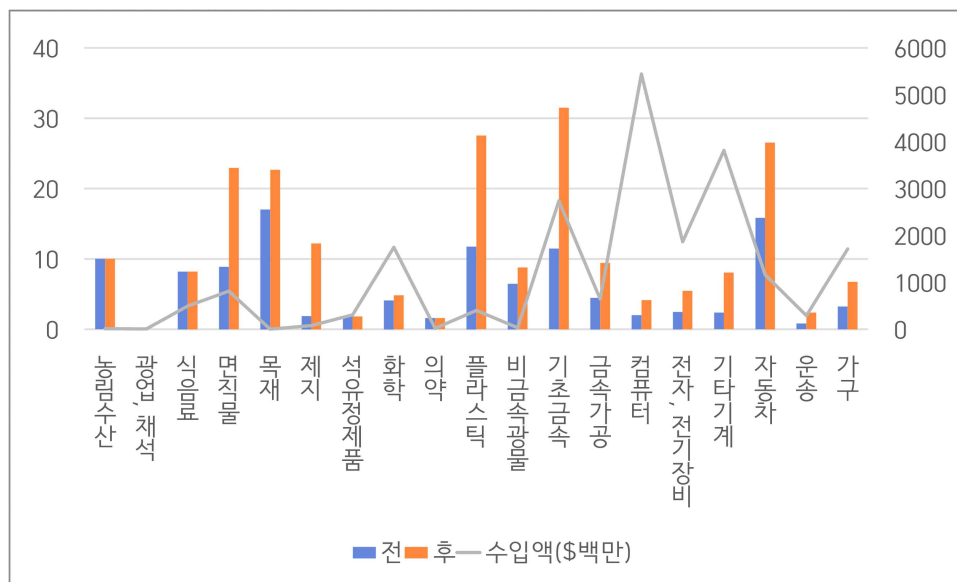
가. 시나리오 1: 멕시코 관세 인상만 고려, 관세 혜택 없음

■ 자동차, 철강, 가전, 섬유, 신발, 화학제품 등 1,463개 전략 품목에 대한 최근 관세 인상만을 고려한 시나리오로 멕시코와 FTA 비체결국 모두가 최혜국대우 관세 증가의 충격을 받음.¹⁵⁾

- 관세 인상만을 고려하고 이들 품목이 IMMEX 또는 PROSEC의 혜택을 못받는 시나리오
- 각 품목마다 적용되는 관세는 FTA 비체결국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관세지만 무역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평균관세율이 각 국가가 체감하는 실제 관세이므로 국가마다 해당 관세 인상안을 체감하는 정도는 다름.
 - 평균관세율이 크게 증가하는 산업은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의 개수가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무역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

그림 1. 시나리오 1에서 멕시코의 한국 수입품 산업별 증가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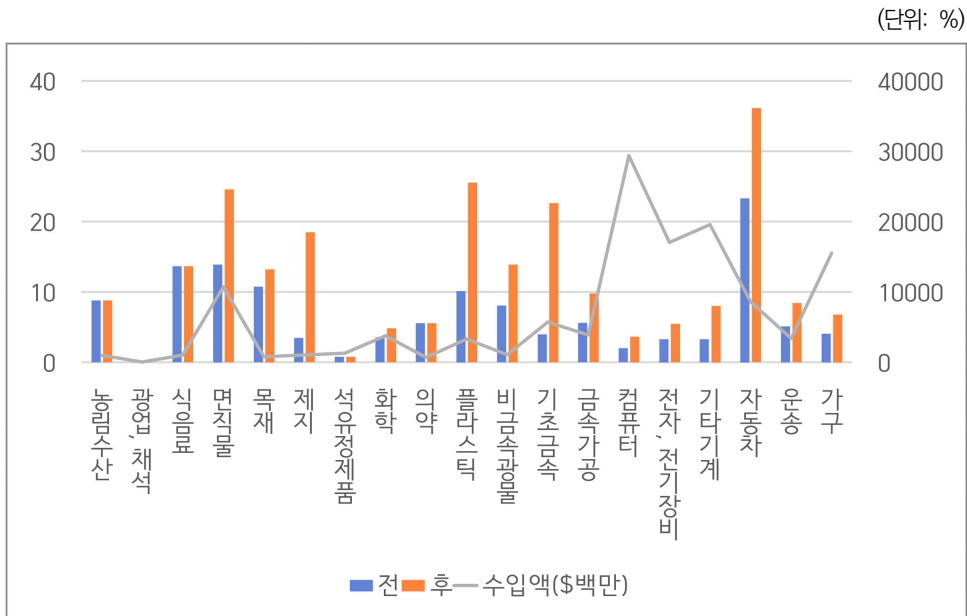
■ 시나리오 1하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컴퓨터, 전자·전기장비, 기타 기계, 가구 산업의 대멕시코 수출액이 높으며, 추가로 한국은 화학, 기초금속 산업의 수출액이 높은 반면 중국은 면직물의 수출액이 높음.

- 한국의 컴퓨터, 전자·전기장비, 기타 기계, 가구의 대멕시코 수출액은 각각 54억 달러, 18억 달러, 38억 달러, 17억 달러이고, 중국의 대멕시코 수출액은 각각 294억 달러, 170억 달러, 196억 달러, 155억 달러
- 한국의 화학, 기초금속의 대멕시코 수출액은 각각 18억 달러, 27억 달러
- 중국의 면직물 대멕시코 수출액은 107억 달러

15) 멕시코 관세 인상안,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777376&fecha=29/12/2025#gsc.tab=0.

- 한국은 컴퓨터, 전자·전기장비, 기타 기계, 가구의 수출액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의 평균관세율이 제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출액과 평균관세율의 변화를 모두 고려했을 때 기초금속과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크게 받음.¹⁶⁾
 - 한국의 컴퓨터, 전자·전기장비, 기타 기계, 가구의 평균관세율은 각각 2.01% → 4.15%, 2.48% → 5.46%, 2.35% → 8.05%, 3.24% → 6.76%로 증가
 - 관세 인상 후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며 해당 평균관세 증가율은 이후 소개될 시나리오 2의 PROSEC 적용 시 유의미하게 감소
 - 한국의 기초금속 산업의 수출액은 약 27억 달러이며 평균관세는 11.46%에서 31.51%로 상승
 -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수출액은 약 12억 달러이며 평균관세는 15.83%에서 26.55%로 상승¹⁷⁾

그림 2. 시나리오 1에서 멕시코의 중국 수입품 산업별 증가세



- 중국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전자·전기장비, 기타기계, 가구의 수출액이 큼에도 해당 산업의 평균관세율이 제한적으로 증가하며 수출액과 평균관세율의 변화를 모두 고려했을 때 면직물, 자동차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음.
 - 중국의 컴퓨터, 전자·전기장비, 기타 기계, 가구의 평균관세율은 각각 2% → 3.65%, 3.3% → 5.46%, 3.29% → 8.03%, 4.06% → 6.8%로 증가
 - 관세 인상 후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며 해당 평균관세 증가율은 이후 소개될 시나리오 2의 PROSEC 적용시 유의미하게 감소
 - 중국의 면직물 산업 수출액은 약 107억 달러이며 평균관세는 13.9%에서 24.57%로 상승
 - 중국의 자동차 산업 수출액은 약 86억 달러이며 평균관세는 23.33%에서 36.12%로 상승

16) 후술하겠지만 시나리오 2하에서 PROSEC 적용 시 한국의 면직물 평균관세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으므로 해당 산업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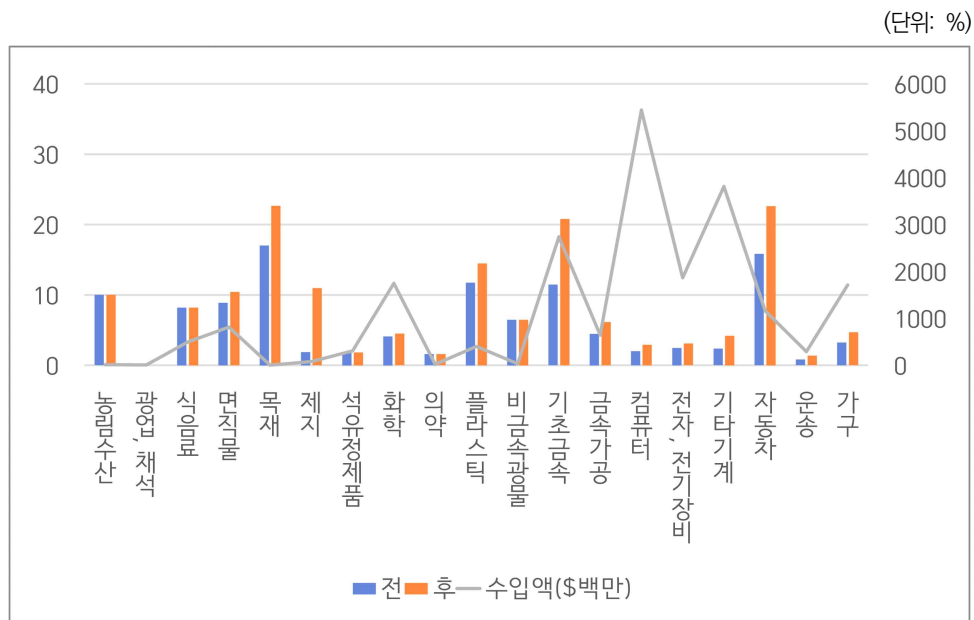
17) ISIC Rev. 4에 따른 분류이기에 자동차 부품으로 최종 조립되어도 중간재 단계에서 기초금속 및 기타 기계로 분류될 수 있음.

나. 시나리오 2: PROSEC만을 활용해 관세 인상 부분 방어

■ 멕시코 관세 인상안과 마찬가지로 PROSEC도 국가를 차별할 수 없으므로 PROSEC의 저관세 혜택을 모든 FTA 비체결국이 활용한다는 시나리오로 최근 발표된 멕시코 관세 인상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설정함.

- PROSEC은 제조업 전반에서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및 부품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제도
- PROSEC 활용 시 한국과 중국 모두 플라스틱(27.53% → 14.49%, 25.52% → 14.15%), 기초금속(31.51% → 20.80%, 22.61% → 8.33%) 산업의 관세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
- 한국은 추가로 면직물(22.94% → 10.42%) 산업의 평균관세가 대폭 하락하고, 자동차(26.55% → 22.64%) 산업의 평균관세도 소폭 하락
- 중국은 추가로 면직물(24.57% → 20.42%) 관세가 소폭 개선

그림 3. 시나리오 2에서 멕시코의 한국 수입품 산업별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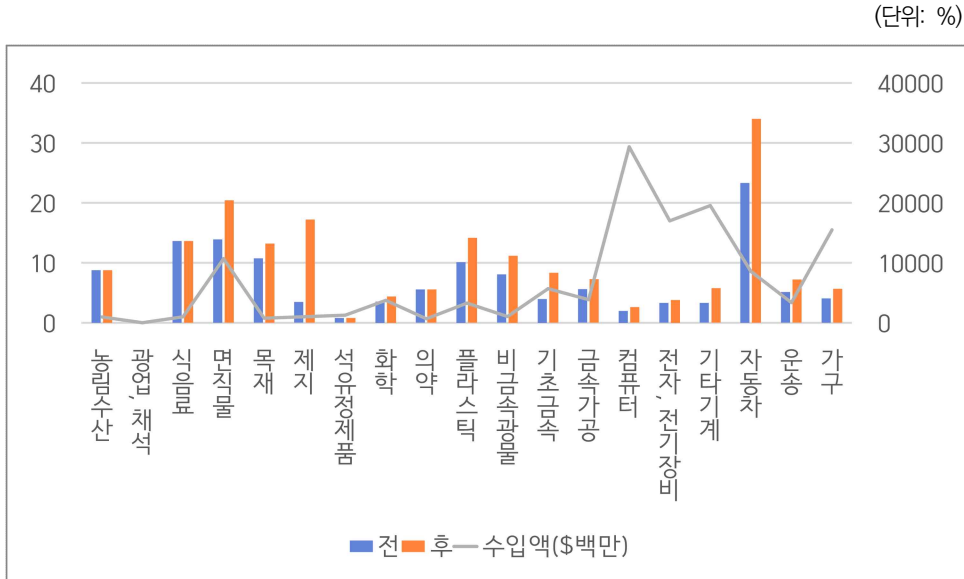
■ 멕시코의 관세 증가는 면직물, 목재, 제지,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기초금속, 금속가공, 컴퓨터, 전자·전기제품, 기타 기계, 자동차, 운송, 가구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며, 중국과 한국이 받는 관세충격은 PROSEC 활용을 고려해도 그 양상이 대체로 비슷함.

- 평균관세율¹⁸⁾이 산업별로 증가하는 양상이 비슷하다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주력품목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 관세율 증가가 없는 산업은 1) 농·수산물·임업, 2) 광업·채석, 3) 식음료품, 4) 의약이며, 최근 조치에 비포함되는 산업

18) UN COMTRADE에서 제공하는 관세율(applied effective rate)은 평균 적용관세율이며, 이를 수입액에 가중치를 두어 산업별로 재계산한 수치.

- 관세율 증가가 유의미한 산업은 1) 면직물, 2) 목재, 3) 제지, 4) 화학, 5) 플라스틱, 6) 비금속광물, 7) 금속가공, 8) 컴퓨터, 9) 전자·전기장비, 10) 기타 기계, 11) 자동차, 12) 운송, 13) 가구

그림 4. 시나리오 2에서 멕시코의 중국 수입품 산업별 증가세



■ 세부적인 증가율은 차이가 있으며 한국이 높은 수준의 평균관세를 부과받는 산업은 목재, 제지, 플라스틱, 기초금속, 자동차 산업이고, 중국은 면직물, 제지, 자동차 산업임.

- 중국의 면직물 산업은 한국과 다르게 PROSEC의 보호를 거의 못받는 것을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각각의 면직물 산업 평균관세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시나리오 1에서 한국의 면직물 산업 평균관세율이 22.94%였으나 PROSEC 활용 시 10.42%로 매우 크게 떨어지는 반면 중국의 면직물 평균관세율은 변화가 거의 없음(24.57% → 20.42%).
 - PROSEC 고려 시, 중국 면직물 산업의 평균 관세율은 13.90%에서 20.42%로 약 47% 상승하나 한국의 면직물 산업은 8.89%에서 10.42%로 약 17%만 상승
- 기초금속 산업은 평균관세 증가율이 비슷하지만 비대칭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 한국의 기초금속 평균관세율은 11.46%에서 20.80%로 상승하고, 중국의 기초금속 평균관세율은 3.97%에서 8.33%로 상승
-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이 PROSEC을 고려해도 평균 22.64%의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되고 중국도 평균 34.02%의 높은 관세율을 부담함.
- 멕시코 관세 인상이 한국과 중국의 플라스틱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함.
 - 두 시나리오 모두 한국과 중국의 플라스틱 전/후 평균관세율은 큰 차이가 없으며, 약 11% 내외에서 14% 내외로 상승
- 제지 산업은 PROSEC과 별개로 한국과 중국 모두 관세혜택과 상관 없이 매우 높은 관세 증가율을 보여줌.

- 2026년 1월 1일 발효되는 멕시코 관세 인상안에 의해 제지 산업의 평균관세율이 중국, 한국 각각 550%, 435% 상승하고 PROSEC을 고려했을 때도 해당 수치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 다만, 한국과 중국 모두 제지 산업의 대멕시코 수출액은 매우 적기에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다. 한·중의 후생 변화

- 멕시코의 교역조건만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한국(-0.03%), 중국(-0.007%), 인도(-0.003%), 미국(-0.0009%) 순으로 교역조건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멕시코의 관세 인상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하지만 동시에 수입액이 대폭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교역조건은 개선되지만 교역량이 크게 줄어들어 오히려 국가 후생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짐 (19)20)21)
 - 한국의 교역조건은 일관되게 중국에 비해 더 크게 악화
 - 시나리오 1하에서 한국은 0.0259% 교역조건이 감소하는 데에 비해 중국은 0.0074%만 감소하며 한국이 중국의 교역조건 감소율의 약 3.5배
 - 시나리오 2하에서 한국은 0.0123% 교역조건이 감소하는 데에 비해 중국은 0.0039%만 감소하며 한국이 중국의 교역조건 감소율의 약 3.2배
 - PROSEC이 한국의 교역조건 감소량을 완화하나 한국은 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더 큰 수준으로 교역조건 감소

표 1. 주요 국가별 교역조건 변화율

(단위: %)

	한국	중국	인도	미국	멕시코
시나리오 1	-0.0259%	-0.0074%	-0.0034%	-0.0009%	0.1483%
시나리오 2	-0.0123%	-0.0039%	-0.0025%	-0.0006%	0.0086%

-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액이 중국의 대멕시코 수출액보다 모든 산업에서 유의미하게 낮지만, 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대체로 높은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멕시코 관세 인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보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이유로 작용
 -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멕시코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은 컴퓨터(31.7bp), 기타 기계(22.2bp), 기초금속(15.9bp), 전자·전기장비(1.09bp), 화학(1.02bp), 가구(9.97bp), 자동차(6.76bp) 등이 있음.

19) 멕시코는 0.053%의 후생감소를 보여주며, 이는 0.1483%의 교역조건 증가를 상회하는 교역량 감소의 결과.

20) 멕시코의 중간재 생산을 위한 수입품의 높은 가격탄력성은 기존 문헌과 일치. 대표적으로 다음의 자료 참고: Romero Tellaeche, Jose Antonio, Rodriguez, and Rodrigo Aliphath(2019), "Estimacion de la demanda mexicana de importaciones," serie documentos de trabajo del Centro de Estudios Economicos 2019-04, El Colegio de Mexico, Centro de Estudios Economicos.

21) 후생변화를 교역조건에 의한 변화와 교역량에 의한 변화로 나눌 수 있으며, 교역조건은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적 가격으로 정의되며 모형 내에서 교역조건 증감은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 변화를 수출액과 수입액으로 가중치를 두어 계산되며 교역량은 가격 외 수입액 변화에 따른 후생 변화만을 계산함.

- 한국의 교역조건 감소 기여율이 가장 큰 산업은 규모 순으로 컴퓨터(19.62%), 자동차(11.08%), 광업·채석(10.87%), 기타 기계(10.8%), 화학(8.13%) 등임.
- [그림 1]에서 컴퓨터, 자동차, 기타 기계, 화학은 모두 실질적으로 대멕시코 관세가 유의미하게 올라간 산업이고, 해당 산업의 교역조건 감소는 관세인상의 직접적인 결과
- 한국의 광업·채석 산업은 대표적으로 멕시코 관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큰 교역조건 감소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효과로 설명될 수 있음.
- 한국의 광업·채석 산업은 그 크기가 작음에도 교역조건 감소에 크게 기여

표 2. 한국/중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감소 기여율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농림수산	-0.86	-6.94
광업, 채석	10.87	3.73
식음료	2.55	2.28
면직물	1.45	12.81
목재	-0.08	1.17
제지	0.65	1.18
석유정제품	5.81	1.79
화학	8.13	4.19
의약	2.02	1.65
플라스틱	0.82	2.57
비금속광물	0.68	1.51
기초금속	7.55	2.37
금속가공	2.76	3.38
컴퓨터	19.62	16.69
전자, 전기장비	7.17	10.88
기타 기계	10.8	16.54
자동차	11.08	4.7
운송	0.92	3.21
가구	8.04	16.3

- 중국의 교역조건 감소가 큰 산업은 컴퓨터(16.69%), 기타 기계(16.54%), 가구(16.3%), 면직물(12.81%) 등임.
-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면직물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며, 중국의 면직물 산업은 자국의 교역조건 감소에 12.81% 기여하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1.45%로 매우 낮음.

- 중국의 가구 산업도 교역조건 감소에 16.3%로 크게 기여하고 있어 한국(8.04%)보다 다소 높음.
- 컴퓨터, 기타 기계, 가구, 면직물, 전자·전기장비를 제외하고는 산업별 기여도가 낮은 편으로 모두 5% 미만

■ 이번 멕시코 관세 인상안은 중국의 수출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주로 자동차 산업과 제지 산업에 그 효과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면직물의 수출량은 장기적으로 크게 타격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이 장기적으로 4.96% 줄어들 것이며, 제지 산업 수출량은 약 4.09%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그 외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기초금속만 소폭 감소하고 수출량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면직물 수출은 소폭 감소하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고 대멕시코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타 국가로의 수출로 대체됨.

■ 본고의 모형은 2026년 3월 25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액 감소량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본고의 산업별 분석의 신뢰도를 상승시킴.²²⁾

- 중국의 수출액이 약 30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나리오 1에서 중국의 전체 수출액 감소량은 약 333억 달러로 중국 GDP의 약 0.2% 수준
- 전기 및 기계 장비 산업(mechanical and electrical sectors)의 수출액은 약 94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나리오 1에서 기초금속, 금속제품, 컴퓨터, 전자·전기 장비, 기타 기계의 수출액 감소량은 약 53억 달러²³⁾
- 자동차 산업 수출액은 약 9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수출 감소량은 약 65억 달러
- 현재 중국이 대멕시코 보복 관세를 고려 중이며 중국의 대멕시코 종가세가 두 배 증가 시 교역조건 감소율은 0.0259%에서 0.035%로 늘어나며 한국이 받는 타격이 크게 증폭²⁴⁾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멕시코의 최혜국대우 관세 인상이 중국의 전 세계 대상 수출액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국의 전체 수출량은 장기적으로 0.35%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의 제지, 자동차 수출량이 특히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면직물 산업 수출량은 멕시코가 아닌 다른 국가로의 수출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임.

22) Reuters, <https://www.economista.com.mx/empresas/china-dice-derecho-tomar-medidas-represalia-aumento-aranceles-mexico-20260325-805804.html>.

23) 산업 분류와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

24) 중국의 대멕시코 관세를 산업별로 두 배 증가시킨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저자 계산.

- 동 관세 인상은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으로 보이나 한국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PROSEC을 적극 활용하는 시나리오에서도 그 부정적 영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음.
 - 한국의 GDP 대비 교역조건 감소율은 중국의 약 3배에 이르며, 이러한 차이는 PROSEC을 최대한 활용한 시나리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 PROSEC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나리오는 한국의 교역조건 감소율을 절반으로 줄이지만 중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음.
 -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의존도가 중국에 비해 크다는 점에 있음.
 - 2023년 중국의 GDP 17조 달러 중 대멕시코 수출액은 1,280억 달러로 0.75%를 차지하며, 한국의 GDP 1.7조 달러 중 대멕시코 수출액은 216억 달러로 1.26%를 차지²⁵⁾
 - 산업별로 교역조건 감소 효과가 이질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컴퓨터, 자동차, 광업·채석, 기타 기계, 화학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무역량과 평균관세율 증가를 고려 시 기초금속과 자동차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나, 간접적인 효과로 인해 한국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 간접효과로 피해를 받는 대표적인 산업은 광업·채석, 컴퓨터 산업
 - 이는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와 한국 경제의 유기적 연결성에서 기인하며, 멕시코 수출 및 현지 중간재 조립 단계의 피해가 한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 가능
 - 반면, 중국은 대멕시코 수출량이 큰 면직물, 컴퓨터, 전자·전기장비, 기타 기계, 가구를 제외하면 교역조건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 거의 없음.

- 이번 멕시코 관세 인상은 수입이 감소해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멕시코 국민의 후생 수준을 약 0.053%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자국에 대한 타격이 작지 않음.
 - 중간재 수출입에 의존적인 멕시코 특성상 관세 인상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취약
 - 멕시코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글로벌 가치사슬의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
 - 이번 관세 인상안은 중간재 조립 허브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키며 총생산을 크게 감소시키며 멕시코 내 최종재 소비뿐 아니라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
 - 기존에 수입하던 중간재의 가격이 관세 때문에 오르면서 다른 수입국을 찾거나 자국 내 생산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 발생²⁶⁾
 - 한국정부는 향후 멕시코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데 이러한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대멕시코 수출을 산업별로 분석했을 때 멕시코 입장에서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는 컴퓨터, 전자·전기장비, 기타 기계, 가구 등임. **KIEP**

25) OECD에서 제공하는 총생산(gross output)과 UN COMTRADE의 양자 간 무역 데이터를 이용해 저자 계산. 총생산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합한 개념으로 국내총생산(GDP)과 다름.

26) 관세 적용 후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여전히 제일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 단순히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 수입하고 제품 생산.

부록

1. 중국의 우회수출 및 멕시코 내 영향력 강화

■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우회수출을 견제하고자 함.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인 2018년 「무역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 기업이 제3국을 경유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우회수출 비중을 높임.
-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멕시코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우회수출 우려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핵심 전략산업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함.
-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이 미국 공급망 핵심 파트너인 멕시코를 활용하여 미국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기업의 제3국 경유 수출 및 생산 이전 움직임이 확대됨.

- 중국은 미국의 대중 관세 및 무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에 생산시설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과 합작하여 원산지를 변경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최근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은 멕시코가 중국 제품의 우회수출 거점이 되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 2023년 멕시코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
 -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등의 산업에서 중국기업의 멕시코 투자 확대가 미국 관세 회피 목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이 2025년 기준 전체 비중의 38.8%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으로 나타나 멕시코 제조업이 북미 공급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함.
 - 중국의 대멕시코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2024년 중국의 대멕시코 투자액이 전년대비 약 120% 증가하는 등 투자 규모가 확대됨.

부록 표 1. 멕시코의 주요 투자국 및 FDI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중
	전체	35,291.6	36,058.0	36,872.4	40,870.8	-
1	미국	15,021.6	13,633.8	16,512.8	15,877.2	38.8
2	스페인	1,637.9	3,774.1	-1,134.2	4,431.4	10.8
3	캐나다	3,780.1	3,472.0	3,215.7	3,322.9	8.1
4	네덜란드	-247.7	891.7	1,881.1	2,387.4	5.8
5	일본	1,838.8	2,908.7	4,284.6	2,293.1	5.6
6	스위스	114.8	349.1	540.1	2,039.5	5.0
7	오스트레일리아	129.8	82.0	606.6	1,682.9	4.1
8	프랑스	421.7	480.6	-803.8	1,223.1	3.0
9	독일	215.2	2,398.9	3,788.5	800.0	2.0
10	아르헨티나	2,315.9	2,248.4	1,064.0	787.5	1.9
11	홍콩	453.7	290.1	260.8	534.4	1.3
12	중국	282.2	151.4	710.3	529.6	1.3
13	대한민국	673.5	503.6	1,307.8	527.2	1.3

자료: 멕시코 경제부.

2. 모형 및 데이터

- [연구방법] OECD에서 발표하는 ICIO(Inter-Country Input-Output) 데이터와 WTO에서 제공하는 관세 및 무역액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Caliendo and Parro(2015) 모형 구현 후 예상되는 영향 분석
- ICIO는 비교적 최근까지의 OECD 국별 투입량·산출량, 산업별 부가가치, 총생산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가장 최근인 2022년 자료를 활용
- WITS(World Integrated Trade System)에서 제공하는 UN COMTRADE의 2023년 양자 간 무역 데이터 (bilateral trade flow)와 실효관세율 데이터를 활용
- Caliendo and Parro(2015)는 국제무역 모형으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고 후생효과를 산업별로 분해(decompose)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본고에서 다루는 모형은 30개국을 포함하고 총 40개의 교역재 산업과 비교역재 산업을 포함하기에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
 - 모형에 포함된 30개국은 자료 수집이 비교적 쉬우면서 경제 규모가 큰 국가로 구성됐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음: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튀르키예, 영국, 미국
 - 교역재 산업: 농림수산, 광업·채석, 식·음료, 면직물, 목재, 제지, 석유정제품, 화학, 의약,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기초금속, 금속가공, 컴퓨터, 전자·전기장비, 기타 기계, 자동차, 운송, 가구
 - 비교역재 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업,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창고·운송지원, 우편·택배, 숙박·음식·주점, 출판·방송, 통신, 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 보험·금융, 부동산, 연구, 행정,

공공행정·국방, 교육, 보건, 예술, 기타 개인 서비스

- 모형의 이론적 토대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 Caliendo and Parro(2015), 홍성우 외(2024), 윤상하 외(2024)²⁷⁾

27) Caliendo, Lorenzo and Fernando Parro(2015), "Estimates of the Trade and Welfare Effects of NAFTA,"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82, No. 1, pp. 1-44; 홍성우, 김성환, 김진오, 강준구, 박미숙, 박진희, 김승현(2024),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과제』, 기본 연구보고서 24-10; 윤상하, 김성환, 최홍석, 송예나, 백인걸, 오준석(2024),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 기본 연구보고서 2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